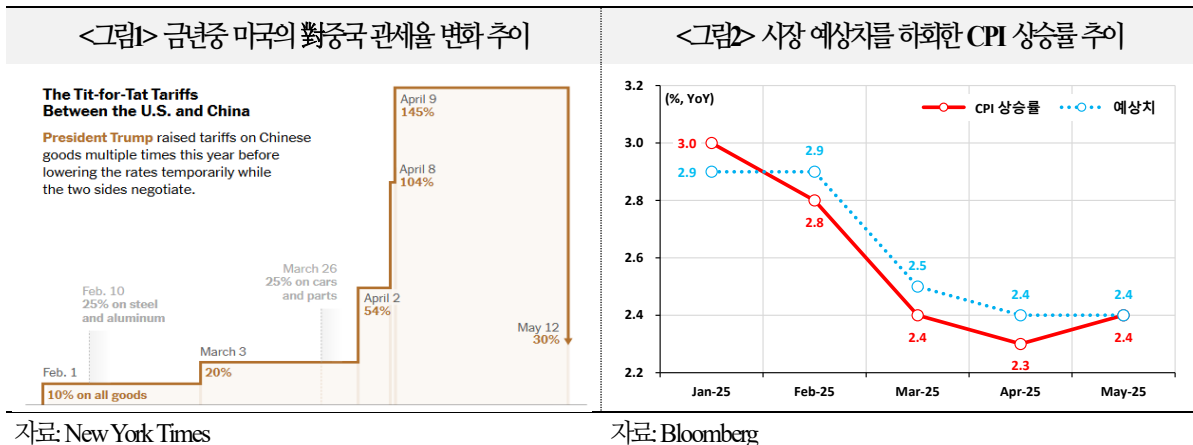


2025. 7. 15.

향후 미국 물가에 대한 관세 영향 가시화 우려¹

김우진 | 책임연구원(3705-624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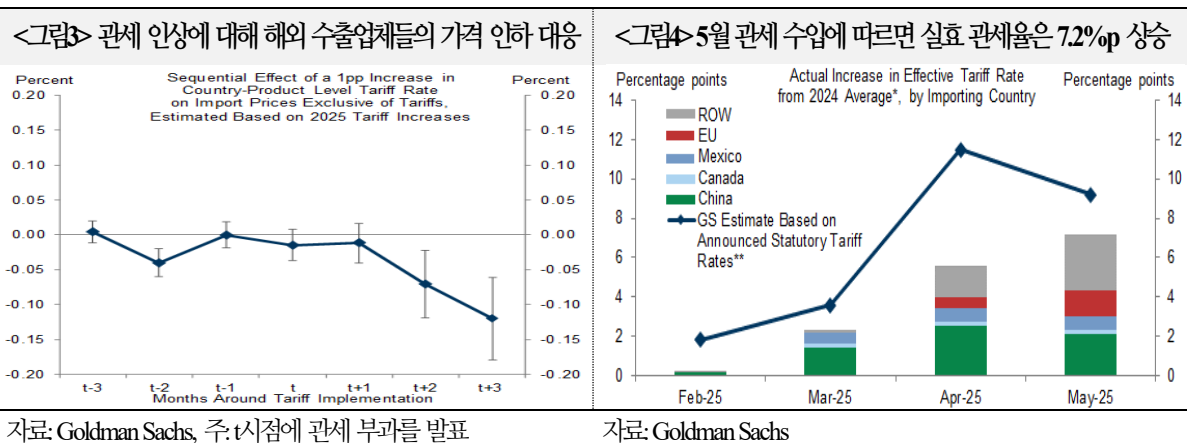
- [현황]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으나, 금년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은 예상보다 안정적
 - 금년 2~4월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45%(2월 10%→3월 10%→4월 125%)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5월 미중 무역회담에서 90일간 30%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<그림1>
 - 3월 초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25% 관세 부과(8월 1일부터 캐나다 35%, 멕시코 30% 발효 예정),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4월 초 10~49% 상호관세 발표(8월 1일까지 유예 및 국가별 상호 관세 통보중)
 - 또한, 3~4월 철강 및 알루미늄, 자동차에 대한 25%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50%로 인상
 -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별 및 품목별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, '25년 3~5월중 미국 CPI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2.3~2.4% 수준을 유지<그림2>



- [해외시각] 5월 수입품부터 실질적인 고율관세 대상인 가운데 관세 회피 목적의 선수입 확대, 관세 발표 이후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의 관세 전가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
 - 금년 4월부터 미국의 국가별 및 품목별 고율관세가 발표 및 시행되었고 미국으로의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 도착하는 수입품부터 실질적인 관세 영향권
 - 더욱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,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은 관세 납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최대 1.5개월까지 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5월에 수입품이 도착한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

¹ Goldman Sachs, "What Have We Learned About Tariff Passthrough to Consumer Prices So Far?", 2025.07.08
 Goldman Sachs, "Salvaging the Soft Data: How Companies Say They Are Responding to Tariffs", 2025.06.23

- 한편,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려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관세 비용 증가를 최소화
 - 미국 수입업체들의 선수입(front-loading) 대응이 없었다면 자동차,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% 관세는 금년 미국 실효관세율을 3.0%p 상승시켰을 것이나, 선수입 영향으로 2.3%p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(Goldman Sachs)
 - '25년 1~3월중 자동차,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은 추세보다 4,000억달러(연 환산 기준) 더 수입되었고, 4월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는 추세보다 1,000억달러 덜 수입된 것으로 추정
- 또한, 해외 수출업체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對미국 수출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관세를 일부 부담
 - 금년 1~5월중 수입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품수입 관세율이 1%p 인상될 때 미국의 상품수입 가격은 관세 시행 2개월 차에 0.07%, 3개월 차에 0.12% 하락(Goldman Sachs)<그림3>
-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실효관세율은 9~12%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실제 관세 수입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7.2%p 상승에 그친 것으로 추정<그림4>



□ [시사점] 금년 상반기중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뒤로 미룰 수 있었던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관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유의

- 지난 '18~'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기업들은 비교적 빠르게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하였고 특히, 관세 부과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70% 전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(Goldman Sachs)
- 뉴욕 및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관세 비용의 약 50%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
 -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입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국내 생산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소비자 물가에 대한 관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